

폼페이오 3시간 방중, 시진핑 못 만났다

중화권 매체 “전례없는 냉대” BBC “왕이와 회담 화약 냄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에서 전례 없는 냉대를 받았다고 중화권 매체 뒤웨이(Weibo)가 10일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8일 일본, 북한, 한국에 이어 중국 등 4개국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 북한, 한국 방문 시 최고 지도자와 회담했으나 방중 시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을 예방하지 못했다. 중국에서는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만났다. 이 매체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6월 중국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에는 시 주석을 예방했으며 이에 앞서 렉스 틸러슨 전 국무

장관이 지난해 두차례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그리고 그 이전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임기내 8차례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모두 중국 최고지도자와 회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폼페이오 장관이 겨우 3시간 중국에 머물렀고 시 주석을 만날 수 없었다면서 이런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냉대는 최근 미·중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500억달러에 이어 2000억달러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매겼고 향후 중국 상품 전체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대만에 대한 군사물자 판매, 중국과 수교하거나 수교를 희망하는 국가에 대한 관여,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은 B-52폭격기 파견과 ‘자유의 항해’ 작전을 끊임없이 강행하고 있고 여기에 다음달 남중국해 혹은 대만 인근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 중국이 미국의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4일 연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중국도 미국의 이런 태도에 맞불을 놓아 지난 9월말 류허 부총리의 방미를 취소했고 이달 예정이었던 미국과의 외교안보대화를 연기했다. 또 미국을 방문한 선진통 해군 사령원을 불러들이 양국군 연합참모부 대화를 연기한데 이어 미국 군함의 홍콩 정박 요청을 거부했으며 최근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군함이 미국 구축함에 41m까지 초근접, 일촉즉발의 위기를 낳기도 했다. 이 매체는 경제에서 군사까지 긴장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양국이 아직 이를 진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면서 미국은 중간선거를 위해 중국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중국도 미국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미국에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또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 관리들과 회견시 각자 자기 할 말만 했고 전운이 감돌았다면서 양 정치국원은 “우리는 미국이 잘못을 고치기를 바란다. 중국 이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도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미국이 대만 등 문제에서 중국에 손실을 주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면서 “이런 잘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격한 언사를 썼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영국 BBC방송 증문판도 폼페이오 장관이 왕 부장과 회견시 분위기가 냉랭했고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美중간선거 한달 앞...CNN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율, 공화당에 13%p 앞서

오는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시행된 CNN방송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 13%포인트 앞서는 지지율을 보였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지난 4~7일(현지시간) 성인남녀 1천9명을 상대로 전화여론조사(오차범위 ±3.8%)를 한 결과, “오늘이 투표일이더라도 당신의 선거구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4%가 민주당, 41%가 공화당이라고 답했다. 13%포인트의 격차는 9월 초 같은 여론조사 때의 10%포인트(민주당 52%, 공화당 42%)보다 조금 더 벌어진 것이라고 CNN은 9일 전했다. /연합뉴스

여성 응답자의 63%는 민주당을, 33%는 공화당을 지지했지만, 남성 응답자 사이에서는 공화당 지지율이 50%, 민주당 지지율이 45%였다. “중간선거 후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런 정치성향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공화당이 수성할 것이라는 예상은 50%인 반면,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다수당을 탈환할 것이라는 전망은 34%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였다. 앞서 8월 초 조사에서는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가 48%였고, 민주당의 경우는 40%였다. /연합뉴스

“중국에 5000억 달러 빼앗겨” 트럼프 추가 관세 재차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수출품 전체에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위협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던 중 “중국이 (기존 관세) 보복한다면 추가관세 부과 가능성은 100%”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이미 보복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보복이 무슨 뜻이냐”며 “중국은 이미 보복을 했다. 5000억 달러를 가져갔고 그것은 궁극적 보복”이라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빼앗겼다고 말한 5000억 달러는 중국이 작년에 미국에 수출한 물품의 규모로 관측된다.

그는 “중국은 수년 동안 2000억 달러, 3000억 달러, 심지어 한 해에 5000억 달러를 가져가기도 했다”며 “우리는 중국의 재건을 도왔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중국은 지금의 중국이 아니다. 거기까지는 좋지만 더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으며 추가로 267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위협하고 있는 2670억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가 추가 부과되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물리는 셈이 된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작년에 수입한 제품의 규모는 미국 상무부 집계 기준으로 5056억 달러다. /연합뉴스



인도 북부 열차 탈선...5명 사망
기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州) 라에바렐리 인근에서 10일(현지시간) 구조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날 여객기차의 6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나 승객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홍콩 언론 “시진핑 일가 홍콩에 고급 주택 등 8채 보유”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가족들이 홍콩에 고급주택을 비롯해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홍콩 빈과일보가 10일 보도했다. 빈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의 누나 치차오차오와 조카 장옌난은 1990년대부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별도의 부동산 회사를 세우는 방식을 사용해 홍콩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들이 투자한 부동산 가운데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홍콩의 고급주택 지역인 리

펠스 베이에 사들인 4층짜리 단독주택이라고 빈과일보는 전했다. 2009년 1억5000만 홍콩달러(약 217억원)에 사들인 이 주택은 현재 시가가 3억 달러(약 435억원)를 넘어서 9년 만에 무려 2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빈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 일가가 여러 부동산 회사의 이름을 사용해 사들인 홍콩의 주택은 리펠스 베이 주택을 비롯해 총 8채에 달한다.

이 8채의 시가를 모두 합치면 총 6억 4400만 홍콩달러(약 934억원)에 달한다고 빈과일보는 전했다. 치차오차오와 장옌난 일가는 한때 홍콩에 거주했다가 현재 호주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빈과일보는 “최고 지도자인 시 주석의 월급은 1만여 위안(1만 위안=약 16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영향력이 가족을 위해 가져온 ‘치부 효과’는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쿠릴 섬서 사격 훈련”...日 반발

일본과 러시아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러시아 측이 10일부터 사격훈련을 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해 왔으며 일본측이 이에 항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모스크바 시간으로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스가 장관은 전했다. 스가 장관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러시아군에 의한 군비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입장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스가 장관은 전했다. 스가 장관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즉각 긴밀하게 협상하

야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승리 후 북방영토 영유권을 확보했지만 2차대전에서 소련이 승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소련은 시코탄, 하보마이, 에토로후, 구나시리 등 4개 섬을 자국의 영토로 선언하고 지배했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미국 등 연합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했지만, 러시아와는 북방영토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아직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대신 1956년 소일공동선언으로 국교를 회복하면서 “평화조약 체결 후 시코탄, 하보마이를 일본에 인도한다”고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日국민 55% “아베, 김정은 빨리 만나야”

일본 국민 10명 중 5-6명은 북일 정상회담이 되도록 빨리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NHK가 지난 6-8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2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열려야 한다”고 답했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19%에 그쳤으며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대답은 18%였다. 이 같은 여론은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막 확산하기 시작하던 지난 3월 요미우리신문의 여론 조사와 큰 차이가 난다. 지난 3월10-11일 요미우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으로 ‘압력’을 중시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43%로,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 42%보다 1%포인트 높았다. ‘압력’과 ‘대화’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자 ‘대화’ 수준을 넘어 북일간 정상회담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퍼진 것이다. /연합뉴스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올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6834-7400